**리가 역사 보고 (김갈렙 선교사의 삶을 회고하며) 09.Aug.2015**

제목: 산자의 하나님, 김갈렙 선교사의 하나님 (부제: 불꽃 같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눅20:38)**

김갈렙 & 에스더 선교사 가정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모범적인 제자양성 역사를 섬겼습니다.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들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니즈니 노보그라드 개척역사를 섬기고 있는 마리아 &세르게이 니끼치나 목자 가정을 비롯하여, 모스크바 미시스 센터의 한나 &세르게이 쥐바예프 목자 가정, 모스크바 물리기술대의 나제즈다 & 이반 파미느흐 목자 가정, 크라스나다르의 베라 & 알렉세이 마우흐 목자 가정 등 네 목자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김갈렙 선교사 가정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제 2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던 중, 몰도바 개척에 대한 비전을 덧입고 준비하였습니다. 갈렙 선교사는 제2의 선교사 인생을 위해 삼성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버렸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한가지 소원가운데,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해야 하는 제2의 선교사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몰도바 개척을 위해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은 비자문제로 이길을 막으시고 라트비아, 리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랜 기독교 역사를 자랑하며 겉모습 아름답지만, 실상은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 고통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로 많고, 기독교 신자는 2% 미만으로 복음 신앙의 불모지와 같은 라트비아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목자가 필요함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갈렙 선교사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드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주일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섬기는 것을 사랑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주일예배 말씀을 섬기고 나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다고 에스더 선교사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양마가 & 앤나 선교사님이 작년, 리가 UBF에 심방 오셔서 선물해 주신 프로젝트를 십분 활용해서 특히 2세 선교사들이 주일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섬겼습니다. 또한, 부활절 예배와 성탄예배에 한번씩만 오는 양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도록 노심초사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양들의 눈높이에서 은혜롭게 섬겨 주었습니다. 갈렙 선교사는 말씀 사랑, 주님이 맡기신 양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넘쳐서 이웃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갈렙 선교사의 아내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아내가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기도응답으로 노래를 잘하는 에스더 선교사를 동역자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올해 에스더 선교사의 생일에는 평소에 보아 두었던 지갑을 선물했습니다. 지갑 속에 들어 있던 고액의 지폐는 덤이었습니다. 이런 갈렙 선교사 때문에 저는 본이 아니게 비교당하며 안드레아나 선교사로부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2세가 없다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에스피리는 갈렙 선교사의 기쁨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관광객들에게 시달리는 피곤한 가이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더라도 딸 에스더가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하면, 바로 달려 나가는 딸바보였습니다. 항상 딸의 눈높이에 맞춰 성경공부를 해주는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갈렙 선교사는 제 동역자 안드레아나 선교사가 아픈 디모데 때문에 집에만 발이 묶여있고, 우울증 초기증세로 고생할 때, 가이드 일을 한번 해 보라며 권유해 주었습니다. 투어 때 같이 데리고 다니며 실습을 시켜주어, 안드레아나 선교사가 가이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본인은 오래된 여행가방을 들고 다니지만, 손님들에게 꿀리면 안된다고 안드레아나 선교사에게는 세련된 명품 샘소나이트 가방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리가 UBF의 2세, 강 사무엘과 아르쫌에게는 좋은 삼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 올해 주일예배 말씀은 사무엘서 말씀을 하는 것이 좋겠다며, 사무엘서 말씀을 2세들의 눈높이에 맞춰 준비해 섬겼습니다.

이렇게 갈렙 선교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갈렙 선교사를 떠나 보내고 우리는 그 빈자리로 인해 괴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슬픔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해맑은 미소로 우리 곁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품에서 해맑은 미소로, 남아있는 우리들을 지켜보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작은 도시 리가에 있었지만, 라트비아가 발틱 3국은 경한 일이요, 유럽과 전세계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갈렙 선교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하늘 나라 산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갈렙 선교사를 떠나 보내고자 합니다. 이제 선한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당신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도 산소망이 충만합니다. 오랫동안 곁에 있었지만 한번도 하지 못했던 말로 마지막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랑합니다.